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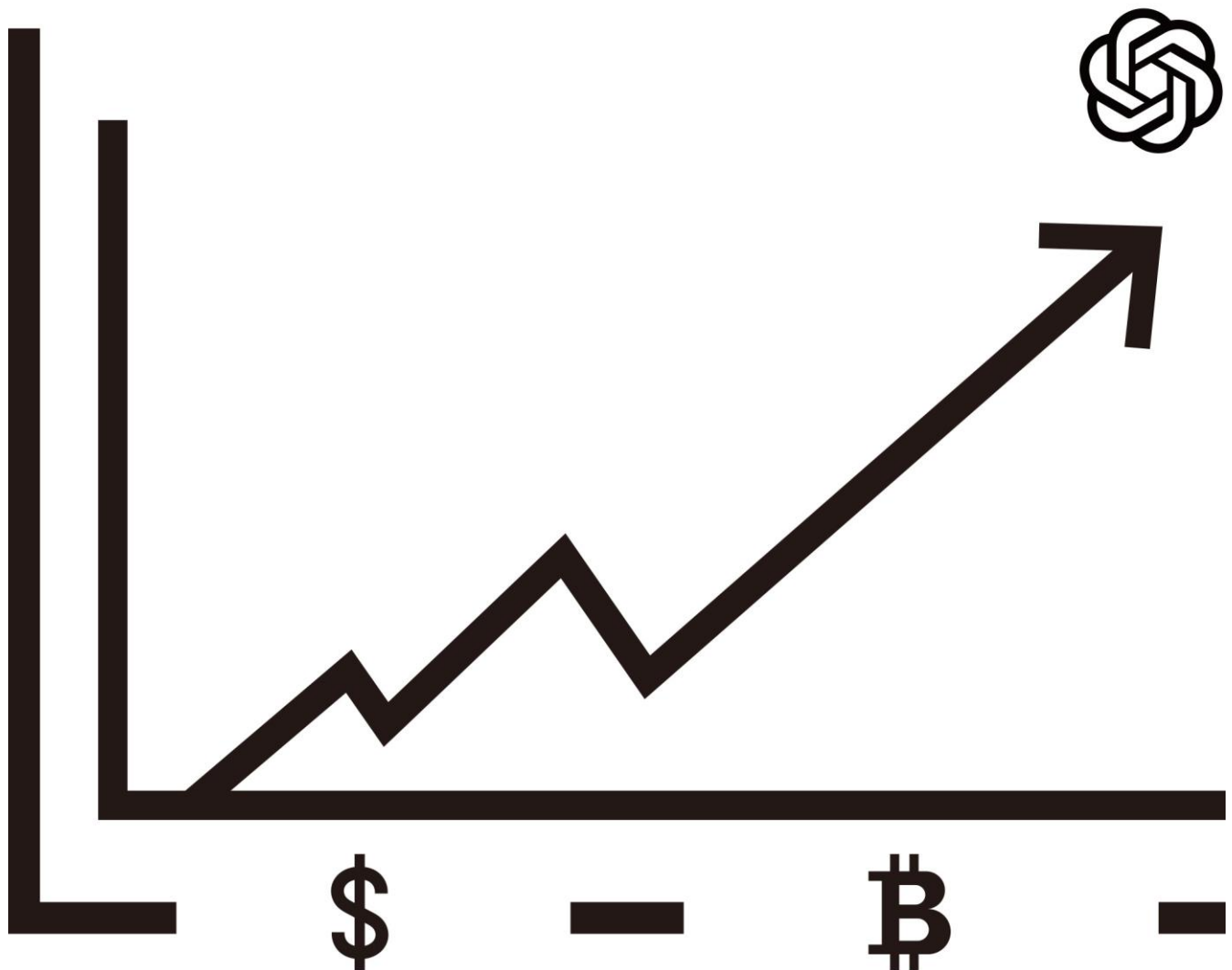
명백한 약세장

오늘의 차트

대체거래소 도입 1개월, 주요 거래 지표 분석

칼럼의 재해석

격변의 파운드리 - 'New Intel'과 '사즉생의 삼성'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투자전략

Analyst 이수정
02. 6454-4893
sj_lee@meritz.co.kr

명백한 약세장

- ✓ 미국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성장 공백
- ✓ 관세 충격 2018년 10월 사례: 주가 하락은 최초 1개월 극대화, PER 하락 선행 후 EPS 조정
- ✓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 관세의 EPS 영향 확정되는 기간 조정을 거쳐 반등 가능

세계 질서 재편 과도기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경상수지 흑자(적자)는 자본수지 적자(흑자)를 의미한다. 즉 무역수지 흑자를 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유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순수출로 인해 달러의 가치와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림1 국민소득 항등식: 순수출 = - 자본 순수입

$$Y = C + G + I + NX$$

$$\text{총생산} = \text{소비} + \text{정부지출} + \text{투자} + \text{순수출}$$

$$NX = (Y - C - G) - I$$

$$\text{순수출} = (\text{총생산} - \text{소비} - \text{정부지출}) - \text{투자}$$

$$NX = S - I$$

$$\text{순수출} = \text{국민저축} - \text{투자}$$

$$NX = -(I - S) = -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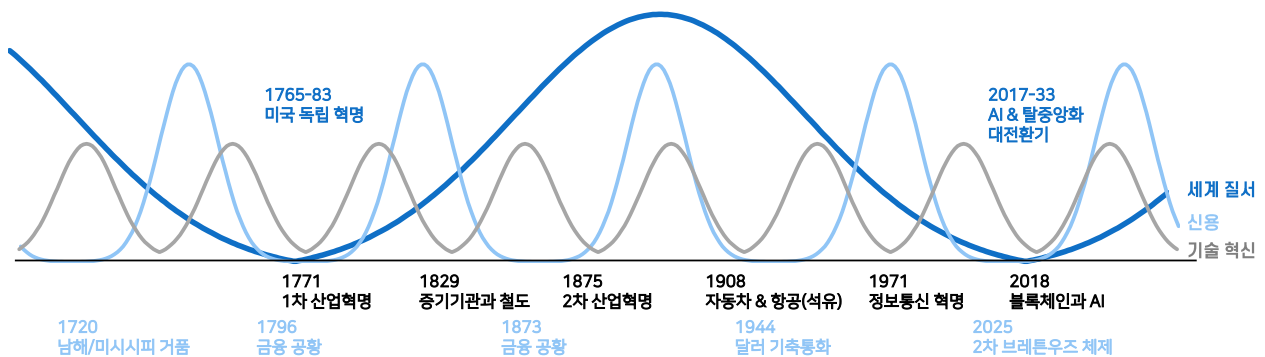
$$\text{순수출} = -\text{자본 순수입}$$

$$\text{경상수지} = -\text{자본수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은 기술 혁신과 부채 사이클을 주도하며 패권국으로 등극했다. 문제는 올해 들어 두 사이클 모두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Magnificent 7은 중국의 저비용 생성형 AI 출시로 기득권을 잃었다. 기술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Physical AI에서도 중국의 저가 휴머노이드 양산이 임박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마음껏 팽창하던 미국 정부부채는 연방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이 국방비를 넘어서며 한계에 부딪혔다.

그림2 기술 + 신용 + 세계 질서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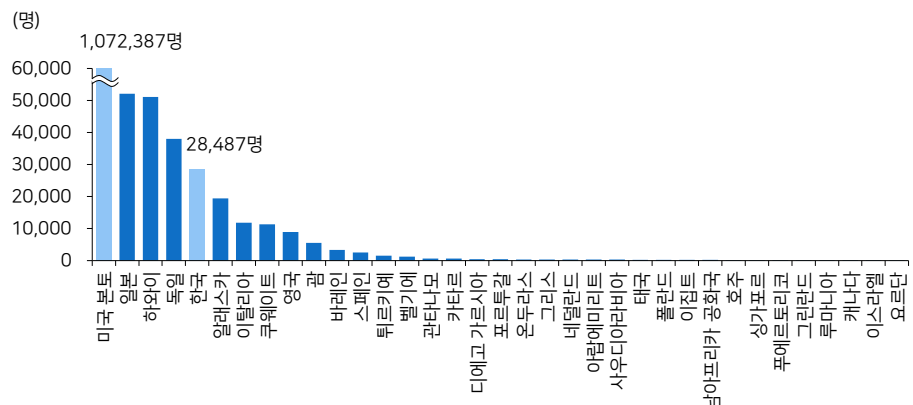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에 미국은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제조강국이 되고자 한다. 관세와 안보 우산을 채찍으로 사용해 무역대상국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녹록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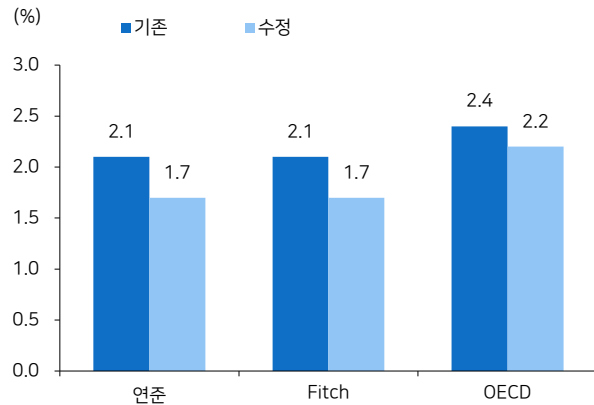
미국 입장에서 세계는 적대국(중국), 경합국(유럽 · 캐나다), 제후국(한국/일본/대만)의 세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후국들은 방위 조약이 사라질까 두려워 관세 전쟁에 수용적 태도로 임하지만, 적대국과 경합국은 보복관세로 대항하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림3 미군 주둔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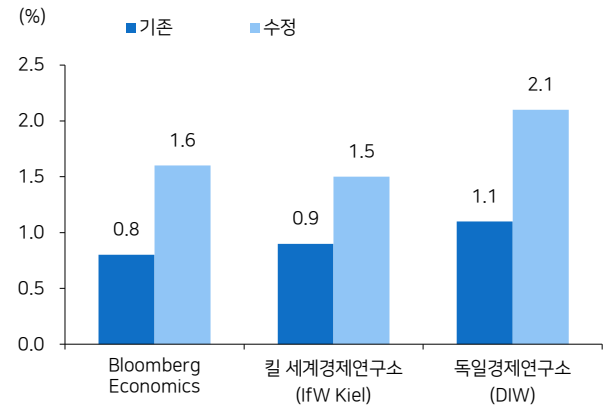
현재는 미국의 일극체제가 정점에서 쇠퇴하고 다극체제가 부상하는 과도기에서 겪게 되는 성장 공백 상태다. 미국 예외주의 균열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 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의 성장은 이를 상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4 20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 변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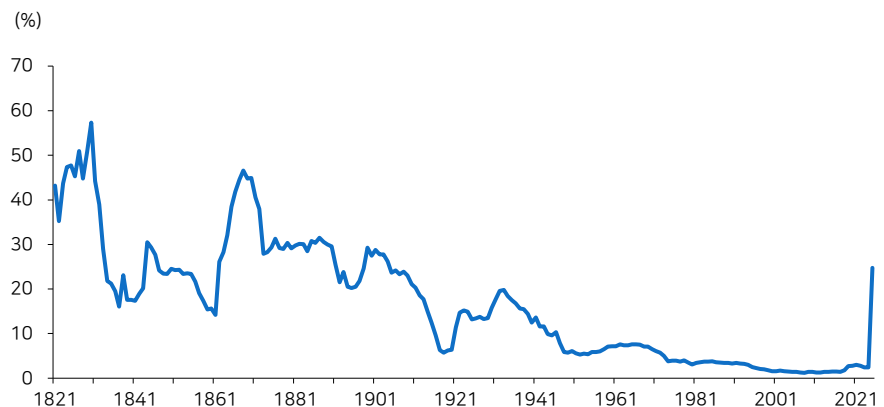
그림5 2026년 독일 GDP 성장률 전망치 변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 와중에 트럼프 2기 발표된 미국 평균 관세율은 대공황 시대 수준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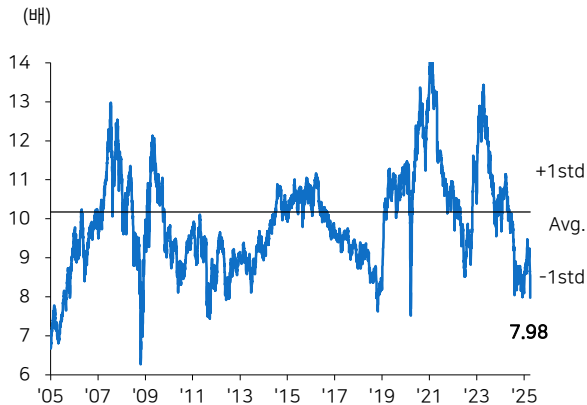
그림6 미국 평균 관세율



자료: US Census Bureau,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Part II;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imports for consumption, duties collected, and ratio of duties to values, 1891-2023, (Table 1)"; Tax Foundation calculati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OSPI는 늘 저평가였지만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다시 한 번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다.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됐던 2018년 10월 사례를 참고해보면, 12MF PER 저점은 7.5배였다.

그림7 KOSPI 12M 선행 PER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KOSPI 12M 후행 PBR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Black October” 당시 한 달 동안 KOSPI는 -13%, KOSDAQ은 -21% 하락했다. 동기간 KOSPI 12MF PER은 -9.3%p 하락, 12MF EPS 추정치는 -3.6%p 감소했다. 즉 무역전쟁 초기에는 EPS 조정보다 PER 하락이 주가 폭락의 동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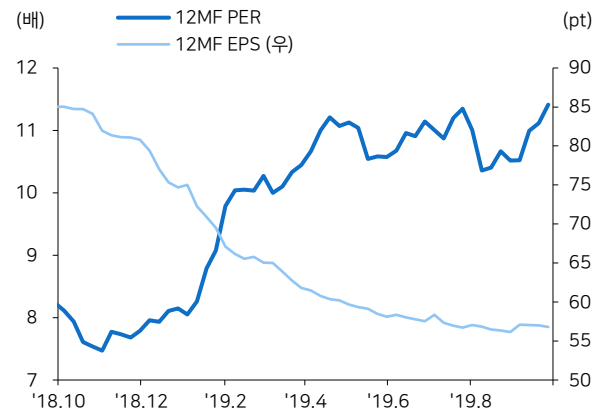
2018년 10월~2019년 9월 관세 충격 이후 1년을 3단계로 나눠보면, [1단계] 충격 직후(0~3개월)에는 주가 급락 → PER 축소, [2단계] 실적 조정기(3~6개월)에는 EPS 하향 수정 & PER 상승(이익 감소폭이 주가 하락폭을 상회한 결과 통계적 착시), [3단계] 안정기(6~12개월)에는 주가와 EPS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주가 하락이 가장 가파른 구간은 충격 직후 1개월이었다.

그림9 KOSPI: 2018년 10월~2019년 9월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한국 12MF PER, EPS: 2018년 10월~2019년 9월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18년 10월 사례

	2018년 9월	2019년 8월	비고
미국 관세율	10%	25%	중국산 철강(25%), 전자제품(15%)
중국 관세율	5-10%	10-25%	미국산 농산물(25%), 자동차(15%)
한국 관세율	4.30%	4.30%	대미(對美) 자동차 부품(유지)
글로벌 GDP 성장률	3.6%	3.0%	2018년 4분기 vs. 2019년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2.5%	2.1%	2018년 4분기 vs. 2019년 3분기
한국 GDP 성장률	3.1%	2.0%	반도체 수출 감소(-11.6%), 설비투자 위축(-8.7%)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1억	\$106억	-12.7%, DRAM ASP 23% 하락
한국 자동차 수출 금액	15.2만 대	13.8만 대	-9.3%, 미국 관세 인상 및 내수 위축
KOSPI	2343.07 pt	1967.79 pt	1년간 -16%
12MF PER	8.2배	10.5배	1년간 +28%
12MF EPS	85 pt	56 pt	1년간 -34%
달러/원 환율	1,115	1,210	+8.5%
미국 기준금리	2.00%	2.00%	2018년 12월 2.50%으로 인상했다가 인하
한국 기준금리	1.50%	1.50%	2018년 11월 1.75%로 인상했다가 인하

자료: FnGuide,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사례를 이용해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KOSPI를 기계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현실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므로 훨씬 복잡하다.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따른 신규 정책 동력 및 추경 가능성이 차별적 호재다.

표2 트럼프 2기 관세 시나리오

구분	10% 관세	25% 관세	40%+ 관세
한국 GDP 성장률 감소폭	-0.2%p	-0.4~0.5%p	-0.7~1.0%p
EPS 변동	-4~6%	-12~15%	-25~30%
PER 변동	9.5~9.8배 (-8%)	8.5~9.0배 (-18%)	7.0~7.5배 (-30%)
KOSPI 단순 계산	2,674pt	2,208pt	1,533pt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한국 추경 시나리오

단계별 추경	규모	내용
1차 추경	정부 발표 10조원	산불피해 지원, 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기본적인 대응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함
2차 추경	예상 30조원 (민주당 34.7조원)	새 정부 출범 직후 6~7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 건설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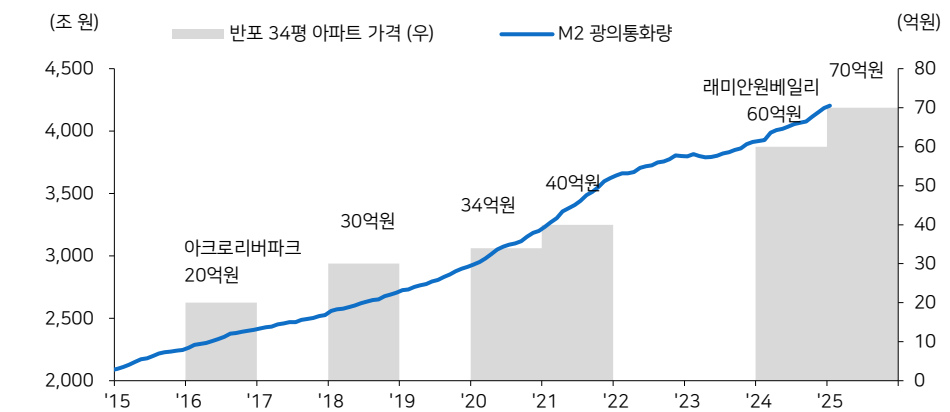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시장 급락시 전략은 투자 시계열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개인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평균 매입 전략을 고수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초기 충격 시 매도 → EPS 하향 안정화 후 재매수 → PER 정상화를 유도한다.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관세율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EPS 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모든 일은 양면적이다. 트럼프의 관세 이행 의지가 강할수록 주가는 약해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트럼프 지지율도 낮아져 관세 협상 여지가 커진다. 경기 침체 우려는 금융시장 투매를 부르지만, 경기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부양적 정책이 나오며 유동성은 늘어난다.

4월 들어 트럼프 경제 정책 지지율은 찬성 42% vs. 반대 54%로 역전됐다. 관세 레토릭(rhetoric)의 정점은 다가온다. 법정 화폐가치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이다. 당분간 현금과 방어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나, 패닉 진정 후 “거리에 선했던 양자”할 때가 최고의 투자 시점이다.

그림11 한국 M2 통화량과 반포 국민평형 아파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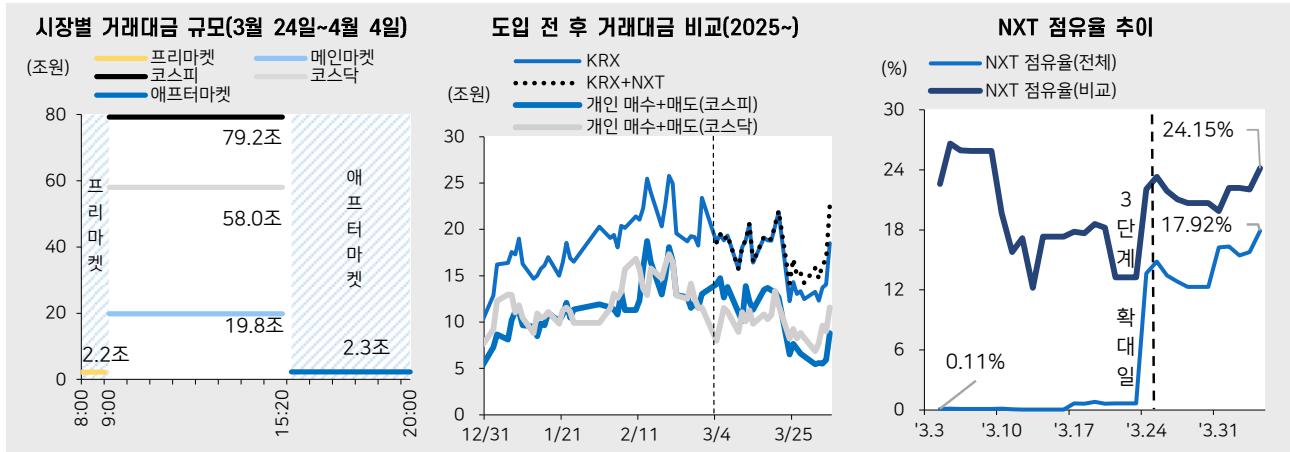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이수정 연구위원

대체거래소 도입 1개월, 주요 거래 지표 분석



주: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등을 제외한 실제 거래대상종목은 4월 7일 기준 794종목(코스피 380종목, 코스닥 414종목)

자료: NXT,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월 4일, 대체거래소인 NXT 출범

지난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메인마켓 전후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해 하루 12시간(08:00~20:00)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KRX) 대비 20~40%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보다 경제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대체거래소 도입 1개월 차를 맞아 주요 거래 지표를 분석해본다.

NXT는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거래 안착

대체거래소 초기 10종목의 첫 주간 거래대금을 KRX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대체거래소는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거래가 안착되고 있다. <차트 1>은 NXT의 시장점유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시장별 거래대금 합계를 나타낸다. NXT 거래 내에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메인마켓 시간 이외에도 거래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규시장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대비 NXT의 거래대금 비율은 각각 25%, 34%이다.

전체 거래대금 증가보다는 분배되고 있는 상황

NXT의 투자자별 거래현황을 보면 개인 98.5%, 기관 1.1%, 외국인 0.4%로 NXT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차트 2>는 대체거래소 도입 전 후 거래대금 추이를 보여준다. NXT의 도입으로 전체 거래대금 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단 KRX 거래대금이 NXT로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4일, 점유율 17.92%로 역대 최고치

마지막으로, <차트 3>은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시점부터 NXT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여준다. NXT는 매매체결대상종목 3단계 확대(3월 24일, 110종목→350종목)부터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3월 31일에는 거래 종목 수를 800개(매매체결대상종목 4단계 확대)로 늘리며 점유율 16.26%를 기록했다. 나아가, 4월 4일에는 점유율 17.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이며,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NXT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칼럼의 재해석

우서현 연구원

격변의 파운드리 - 'New Intel'과 '사족생의 삼성' (Bloomberg)

'영원한 1등은 없다' 고(故) 이견희 삼성 회장의 전언이다. 과거 인텔은 PC용 CPU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두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주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AI시대 삼성전자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 파운드리 시장은 생존을 건 2nm 수율 확보라는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트럼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텔의 부활이 성공할지, 혁신의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상가상으로 성숙 공정 기업(글로벌 파운드리&UMC) 간의 합병 논의와 경쟁사들의 JV 설립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삼성과 인텔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공격과 미중 갈등 심화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중(對中) ASML EUV 장비 반입 금지와 TSMC 라인 제한 등에 따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선단공정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TSMC의 입지를 위협하는 인텔과 삼성의 새판짜기가 성공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몰락한 인텔의 마지막 승부수, Lip-Bu Tan의 '뉴 인텔'

몰락한 인텔 제국,
24년 -117억달러의 영업적자 기록

엔비디아 인수 포기, 아이폰 칩 개발 거절, 오픈AI 투자 포기. 지난 30년간 인텔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작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엔비디아에 그 자리를 내주고, -117억 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非)인텔 출신의 립부 탄(Lip-Bu Tan)이 차기 CEO로 내정되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인텔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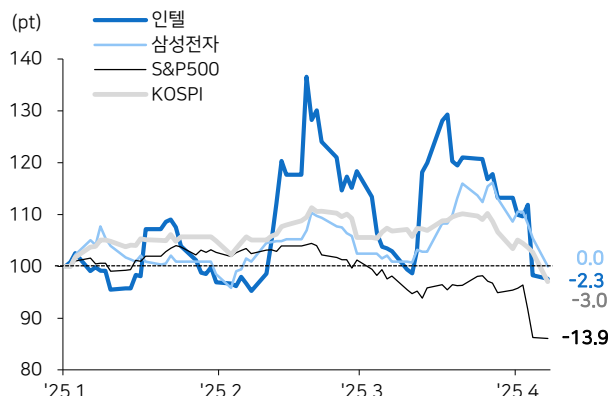
인텔 신임 CEO,
파운드리 사업 지속 의지 표명

취임 직후 그는 공식 서한을 통해 "인텔의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적 수준의 파운드리를 구축**하며, 미래를 대비해 회사를 재창조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파운드리 사업 지속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인텔이 TSMC, 삼성과의 정면승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텔, 美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
총 108억 6,000만 달러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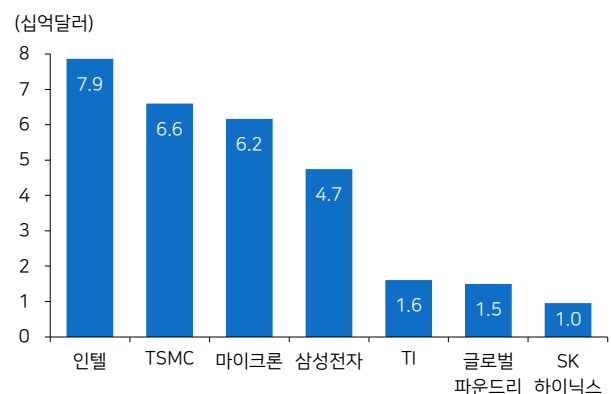
미국 정부 역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인텔을 적극 지원했다. 바이든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78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美 국방부와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총 108억 6,000만 달러를 수혜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 회복을 위해, 파운드리 시장의 67%를 점유하는 TSMC를 압박하며 '인텔 밀어주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1 인텔, 삼성전자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美 칩스법, 기업별 확정된 보조금 추이



자료: 언론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파운드리 “새판짜기”

AI시대,
IDM(종합반도체) 기업들의 부진

AI의 출현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속도는 한층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수혜는 선두 기업인 TSMC에 집중되고 있으며, AI 혼풍에 올라타지 못한 삼성과 인텔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과거, PC와 스마트폰과 같이 단일 디바이스의 보급기 동안은 제품을 설계부터 제조까지 수행하는 IDM(종합반도체)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였다. 단일 선두 제품에 기술력을 집중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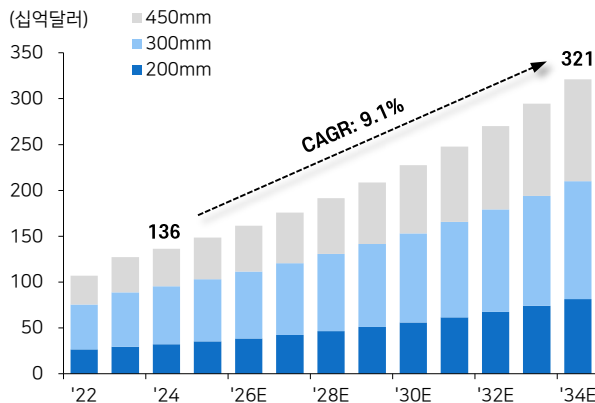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 각 공정 선두 기업
중심으로 구조 개편

하지만 1) 기존 디바이스에 AI 기능을 탑재하며 발생한 스펙 상승, 2) 신규 디바이스와 칩의 등장으로 각 공정에서 최고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서, 육각형 기술력을 충족해야하는 IDM 기업(인텔과 삼성)보다는 각 공정의 으뜸 기업(엔비디아-TSMC-SK하이닉스, 퀄컴 등)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추세 변화가 발생하였다.

사내 물량 마저 빼앗긴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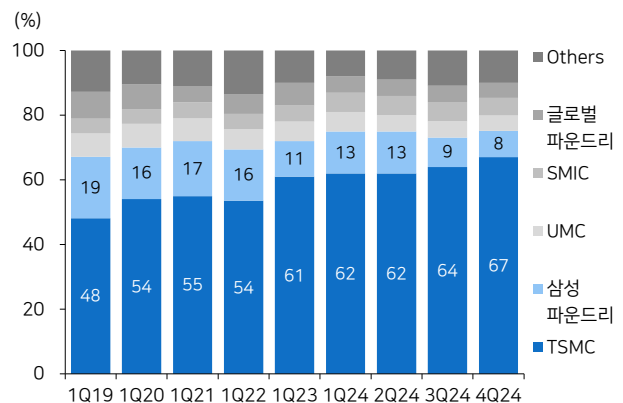
이는 기존 디바이스 시장에도 전이가 되며, IDM 기업들의 고충은 늘어났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TSMC'에서 제조한 '퀄컴'의 스냅드레곤 8 엘리트 칩셋이 전량 탑재 되었다. 즉, 기존 디바이스 시장 또한 현시점 설계 부문의 선두 주자와 제조 부문의 선두 주자로 시장이 넘어가고 있다.

그림3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9.1%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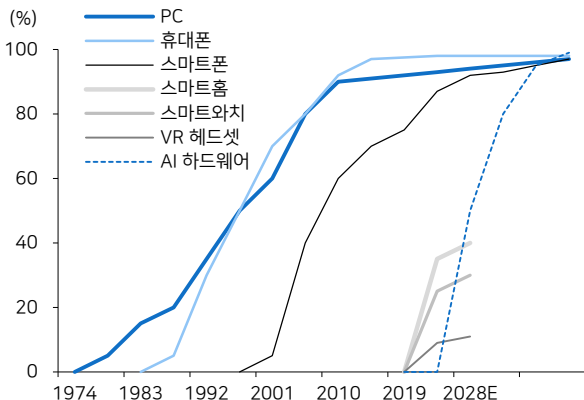
자료: GM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TSMC의 점유율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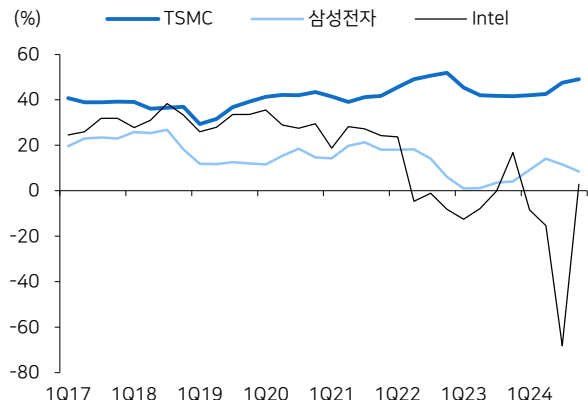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AI시대, 기기 다변화와 빠른 보급 발생 중



자료: ARK Inve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선두기업들의 영업이익률 - 인텔 고정비 부담 가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격변의 파운드리

파운드리 주도권 회복을 위한
미국의 물밑 작업 지속되는 중

지난 주 인텔과 TSMC의 합작회사(JV) 설립 잠정 합의, 글로벌파운드리와 대만의 UMC가 합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달아 보도됐다. 구체화된 사실은 아직 없으나, 트럼프 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올해 선단 공정과 성숙 공정의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nm 공정에서 TSMC,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 진검 승부 예정

2025년 파운드리 시장은 생존을 건 2nm 수율 확보라는 진검승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TSMC만이 양산 가능 수준인 60%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텔과 삼성전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실패한 3nm GAA 공정을 뛰어넘고, 2nm 공정부터 반격을 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인텔 또한 18A(2nm) 공정을 공개하며 시장 재편에 나섰다. 여기에 일본 라피더스의 시장 진입도 예정되어 있다. (표1)

사족생의 삼성,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과거 삼성 파운드리리는 갤럭시 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 칩셋인 A4~A7을 독점 양산하였으며, 모바일,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모든 구슬을 꿰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자사의 엑시노스 칩의 수율 확보 마저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남겨두고, 설계와 제조 두 부분의 기술력 회복을 위한 협력이 간절한 시점이다.

경쟁 업체들의 JV 설립, 합병설 등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공격과 미중 갈등 심화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중(對中) ASML EUV 장비 반입 금지와 TSMC 라인 제한 등에 따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선단공정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TSMC의 입지를 위협하는 인텔과 삼성의 새판짜기가 성공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1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개발 추이

	2011	2014	2017	2018	2021	2023	2024	2025
삼성전자	32nm	14nm	10nm	7nm	5nm	3nm GAA 1세대	3nm GAA 2세대	2nm GAA 3세대
주요 이슈 (삼성)	초기 수율 문제 해결	FinFET 도입, 수율 이슈	2세대 양산 시작	EUV 도입, 초기 수율 저조	5LPE 공정 개선 중	GAA 적용, 수율 문제	GAA 수율 개선 작업	GAA 공정 기반 엑시노스 2600 준비 중
인텔	22nm	14nm	10nm	10nm	7nm	4nm(20A)	3nm(18A)	2nm(18A) - RibbonFET
주요 이슈 (인텔)	FinFET 도입	생산 지연 문제 (Broadwell)	생산 난항 (CannonLake)	공정 경쟁력 저하	공정 경쟁에서 뒤처짐	공정 경쟁력 강화	수율 확보 노력	2H25 팬서 레이크 양산. 엔비디아/브로드컴 퀵 테스트
TSMC	28nm	16nm	7nm	7nm	5nm, 3nm	3nm	2nm Nanosheet	2nm
주요 이슈 (TSMC)	고객사 확대 (퀄컴, TI 등)	FinFET 수율 안정화 노력. 이듬해 양산	개발 성공	EUV 안정화 화웨이, 애플, AMD 수주	5nm 양산 확대, 3nm 2년 내 생산 계획	N3 양산 시작, 애플 3nm 생산분 독점	2H24, N2 공정 시험 생산 준비	2H25 양산 시작, 애플, AMD, Intel, 브로드컴 등 잠재 고객 거론
라피더스	-	-	-	-	-	2022년 설립	2nm	2nm
주요 이슈 (라피더스)	-	-	-	-	-	日 정부와 8대 기업들 출자	2nm 기술 개발	브로드컴 시제품 공급 계약

자료: 언론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Lip-Bu Tan's 'New Intel' Is the Last Throw of the Dice & TSMC Won't Make Intel Great Again